

구자범 지휘자, 남을까? 떠날까?

광주시향과 내년 2월말 임기 만료... 市와 재계약 조율 난항

“지역 클래식 대중화에 큰 공헌” 시향카페 팬들 연임 한목소리

‘구자범 지휘자, 광주시향 떠나 나?’
 내년 2월말 임기가 만료되는 광주시립교향악단 구자범(41) 상임지휘자의 재계약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 지휘자의 진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약 어떻게 되나
 구 지휘자의 임기는 2011년 2월 28일, 구지휘자는 지난 8월부터 재계약과 관련된 논의를 광주시에 요구했고, 지난 10월 11일 강은태 광주시향장과 면담을 가졌었다. 광주문화회관장 등이 배석한 이날 자리에서 강시장은 ‘재임’을 전제로 재계약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후 광주시가 제시한 안은 2009년 취임 당시와 ‘같은 수준’인 ▲연봉 10만달러(당시 환율 대비 1억5000만원) ▲비행기표 ▲연 90일근무, 10회 연주, 환율이 하락한 점을 감안, 연봉은 한화 1억50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지휘자는 ‘지속적으로’ 단원 채용과 예산 집행의 자율성 등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취임 당시 박광태 전 시장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고 광주시향행(行)을 결정했지만 조례개정 등이 좌절되는 등 재임 내내 오케스트라 운영에 애를 먹었던 구지휘자는 문서화 등을 요구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향과 구자범
 구 지휘자가 임성하면서 광주시향은 창단 후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무엇보다 가장 많이 변한 건 관객들의 호응이었다.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 온 중·고생들로 시끄러웠던 객석은 진지한 클래식팬들과 음악에 사랑하는 시민들로 채워졌다.

정기회원은 350명(선착순 모집)으로 늘었고 공연수익금도 3500만원이 증가했다. 시민합창단 등 518명이 함께 한 5·18 30주년 기념 말러 ‘부활’ 공연, 2009년 12월 31일 새해 카운트다운을 함께했던 제야음악회 등 매진사례를 기록한 공연들도 많다.

또 광주교도소 등에서 열린 찾아가는 음악회, 티켓 가격 차별화, 지정좌석제 도입, 협연자 개런티 파격 인상, 음악과 관련한 ‘미니 사진’ 역할을 하는 팸플릿, 인터넷 카페 운영 등 구지휘자가 취임하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그밖에 시향 창단 이후 처음으로 도쿄와 오사카 대규모 공연장에서 초청 공연을 갖기도 했으며 서울·울산 등 타 지역에서 광주시향의 공연을 보려는 발길도 이어졌다.

▲클래식 팬들 움직임
 지난달 28일 광주시향 카페(http://cafe.daum.net/gjsym.orch)에 구지휘자 재계약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재계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광주시향 홈페이지 ‘시장에 바란다’에도 글을 올리고 있다.

아이디 ‘페르세우스’는 “다른 어느 때보다 광주시향이 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아름다운 선율이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이 시점에서, 구 지휘자가 연임되지 않는다면 광주로서는 너무도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잘못된 선택이라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단원이라고 신원을 밝힌 이는 “구 지휘자는 광주에 남고 싶어한다”며 광주시향을 시민들이 지켜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몬테크리스토’ 역시 “음악을 사랑하는 광주시민이라면 구지휘자를 붙잡을 수 있도록 광주시를 설득해야 한다”며 서명운동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일부 회원들의 경우 오는 11월 6일 열리는 광주시향 정기연주회 때 구 지휘자와 광주시향에 대한 시민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글도 올리고 있다.

광주문화회관 관계자는 “재계약과 관련한 논의는 끝난 게 아니다”며 “지휘자가 요구하는 조건 등을 포함,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지휘자는 “재계약과 관련해서는 노 코멘트하겠다”고 답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구 정길무용단, 전국무용제 대통령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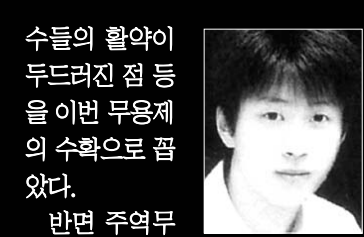
광주 '김미숙뿌리무용단' 은상·최인경 연기상

10일간 열전을 펼쳤던 제19회 전국무용제에서 대구 정길무용단이 영예의 대통령상(상금 2000만원)을 수상했다.

지난달 30일 광주문화회관에서 막을 내린 이번 무용제에서 한국무용 ‘민화’를 무대에 올린 정길무용단은 심사위원들로부터 “한국의 전통성을 상징하는 민화를 소재로 채택, 우수한 기량의 무용수들이 흥미학적 움직임에 입체감 있게 살렸다”는 평을 받았다.

광주 대표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안무 공진희)은 ‘세번째 뽀-뽀’으로 은상을 받았으며 주역을 맡은 최인경씨는 연기상을 수상했다.

김민희(한양대 교수)씨 등 심사위원들은 추상적인 소재의 춤보다 대중의 이해를 얻는 ‘이야기’가 있는 작품이 많았던 점과, 남성 무용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점 등을 이번 무용제의 수확으로 꼽았다.



최인경

◇수상내역
 ▲금상=전북 오문자 알타리아댄스컴퍼니, 부산 박성호 무용단 ▲은상=경남 김태훈무용단, 충남 김보라무용단, 경북 정숙희 무용단 ▲인무상=서성훈(오문자 알타리아댄스컴퍼니) ▲최우수연기상=박성호(박성호무용단).

었다는 점에서 광주시민들에게도 큰 즐거움이였다. 하지만 관객들이 중·고생 등 동원객이 대부분이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복지관 가족의 끼 보여드립니다

3일 무지개공동회 '엠마우스 예술제'

지역장애인·가족성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회(대표 천노을 신부) 가족들의 끼와 장기를 보여주는 '2010엠마우스예술제'가 3일 오후 7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엠마우스어린이집 원생들의 울동으로 문을 여는 이날 예술제에서는 엠마우스복지관 팀의 핸드벨 연주와 댄스, 엠마우스부모 연대의 한춤, 엠마우스일터의 '오라차차 유랑극단 II' 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한 엠마우스복지관 소극터

미스트의 합창과 엠마우스산업극단의 연극 '어린왕자' 공연도 준비됐다.

엠마우스보호작업장에서 준비한 '오카리나 & 차의 만남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엠마우스복지관 소극터

'한국사회와 천주교 문화'

광주가톨릭대, 5일 학술발표

한국사회의 천주교 역사와 의미를 살펴보는 학술발표회가 오는 5일 광주가톨릭대학교 강당에서 열린다.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소장 김정용 신부)와 광주인권평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학술발표회는 '한국 사회와 천주교 문화'라는 주제로 신학자와 신부들이 참여, 주제 발표와 토론을 펼친다.

조광(고려대 명예교수)씨가 '역사적 관점에서 본 한국 문화와 천주교' 기조강연하며 박문수(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부원장)씨와 강인철(한신대 교수)씨가 각각 '천주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과 천주교의 과제', '정치적 대립과 종교적 통합의 동학:군사정부 시기의 교회와 국가'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문의 061-339-223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젊은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작품들

'솔라 이클립스' 단체전... 9일까지 광주롯데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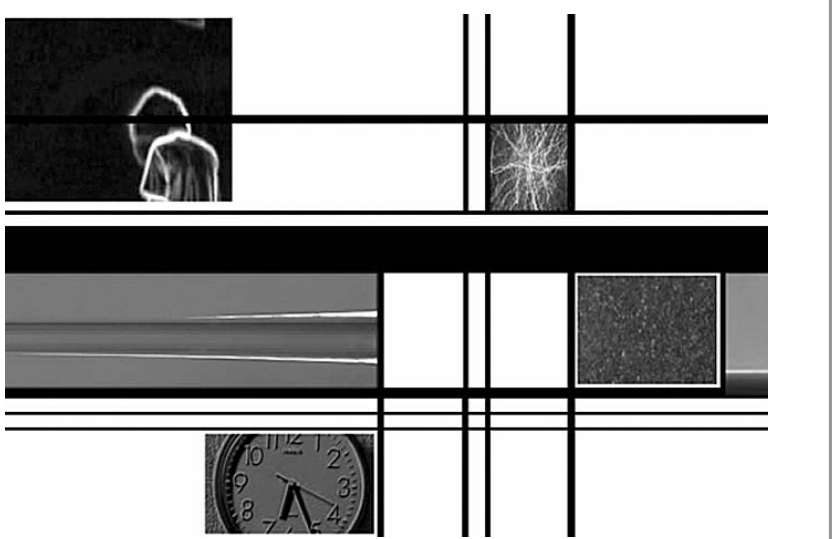
지역 젊은 미디어 아티스트 단체 '솔라 이클립스'(Solar eclipse)가 광주(오는 9일까지·광주롯데갤러리)와 안양(12일~12월1일·안양롯데갤러리)에서 잇따라 단체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권승찬·박상호·나명규·방우송·이이남·진시영·박상화·신도원·임순중·조용신·장석원씨가 참여한다.

이들은 '디지털, 신체, 욕망'을 주제로 미디어 퍼포먼스, 미디어 설치, 평면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미디어 작품을 선보인다.

한편 일식(日蝕)을 뜻하는 솔라 이클립스는 미디어 아트의 다양성을 통해 실험적인 메시지를 구현하고자 결성된 예술가 그룹이다. 문의 062-221-18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남명규 작 '존재의 컴포지션'

하나투어 전문판매점

하나투어

예약문의 062-224-0022

광주 무안직항로 떠나신나날 여행

전일빌딩 1층 투어뱅크

구도청

금남로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한국능률협회선정 (2005~2010) 6년연속 브랜드파워 1위

브랜드스톡선정 (2005~2010) 6년연속 브랜드스타 1위

한국표준협회선정 (2007~2008) 2년연속 KS-SQI 서비스품질지수 1위

내 아이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

영어 캠프 상품

요금 1,650,000원~

- 1차 : 2011년 1/4일 ~ 1/15일
- 2차 : 1/18일 ~ 1/29일

■ 캠프 장소 : 서해 유스호스텔

■ 참가 대상 : 초등 3학년 ~ 중등 1학년

■ 캠프 특전

- 11월 20일까지 조기 예약 10만원 할인
- 형제/자매 예약 5만원 할인
- 4인 단체 예약 5만원 할인
- 200시간 이상의 영어 몰입 환경 제공
- 비전 리더십 특강 제공

규슈 원천 여행!

특별한 추억, 감동의 선물

하나투어 창립 17주년

하나투어 단독출생

김수희

孝콘서트

일본 부관헤리 4박 5일 김수희 <효>콘서트

■ 출발일 : 11월 27일, 11월 28일 (단2회)

■ 출발지 : 광주역

요금 509,000원~

포함 사항 : 왕복철리비용, 유류할증료, 부두세, 선내식 2회, 현지지상비, 해외여행자보험, 광주/부산국내수송

포함 사항 : 선내식 2회, 기사&가이드봉사료(20,000원~성인, 아동 동일)

무안공항 마카오 전세계 취항 기념

홍콩 | 마카오 | 2박 4일

요금 899,000원~

- 출발일 : 목(4일), 일(5) 주 2회
- 상품특전
 - 무안공항출발
 - 스타리마켓, 리필스페이, 빅토리아피크-홍콩대교 관광지
 - 마카오 시내관광, 성바울 성당 등 주요 관광지 관광
 - 아침식, 광동식 등 현지식 제공

JUMBO

宮皇角海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 광고표시 등에 관한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필수경비 포함 : 여행자보험(해외1억원/국내5천만원), 관광진흥기금, 공항이용료 및 유류할증료, 안내원비용 ■ 선택경비 : 개인적 선택에 따른 현지선택관광은 별도비용(일일표에 명시), 개별적인 및 비비비용 별도

■ 서울시 중구 공평동 1번지(주) 하나투어 ■ 일반여행업 등록 377(서울) ■ 관광진흥법신고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6의 보증보험 가입(보통기간: 매년 2월 1일~다음해 1월 31일) ■ 최소 출발인원: 10명 ■ 승차: 2급 호텔 이상 ■ 교통편: 항공/버스 ■ 상기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유류할증료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0원짜리는 오동변동임)